

C-5. 'Restorative Alveolar Interface(RAI)' 개념의 응용

이재연, 이학철
목동예치과병원

연구배경

치과 임플란트는 예지성 높은 치료이지만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외과적 시술, 장기간의 치유기간,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 Ross 등(1982, 1983)은 수복변연과 치조골 사이의 치질 즉, restorative alveolar interface(RAI)를 외과적으로 변형시켜 수복할 때의 장점을 보여 주었다. 이의 개념을 비스듬한 치아-치근 파절 치아에 적용하여 발치하지 않고 수복한 증례이다.

연구방법 및 재료

치아 한두 면에 국한된 비스듬한 치아-치근 파절 시 외과적 판막을 만들어 파절 면을 high speed diamond bur와 low speed root planing bur로 삭제, 연마하고, 파절선이 골 내에 위치한 경우 파절선 상방에 국한된 골 수술을 병행한 후 판막을 근단 변위 시켜 봉합한다. 이 후 연조직의 치유과정을 거쳐 형성된 치은 연을 기준으로 하여 수복물의 변연을 다시 형성한다.

연구결과 및 결론

본 방법을 통해 파절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골을 남기면서 심미성과 염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파절선이 생물학적 폭경에 위배된 깊이에 있을 경우 그대로 수복하면 만성 염증과 불량한 수복물 변연이 생기고, 치관연장술 만을 적용하는 경우 과도한 골삭제와 비심미적인 결과를 얻는 것에 비해 본 방법이 유리하며, 추후 임플란트를 위한 골의 보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